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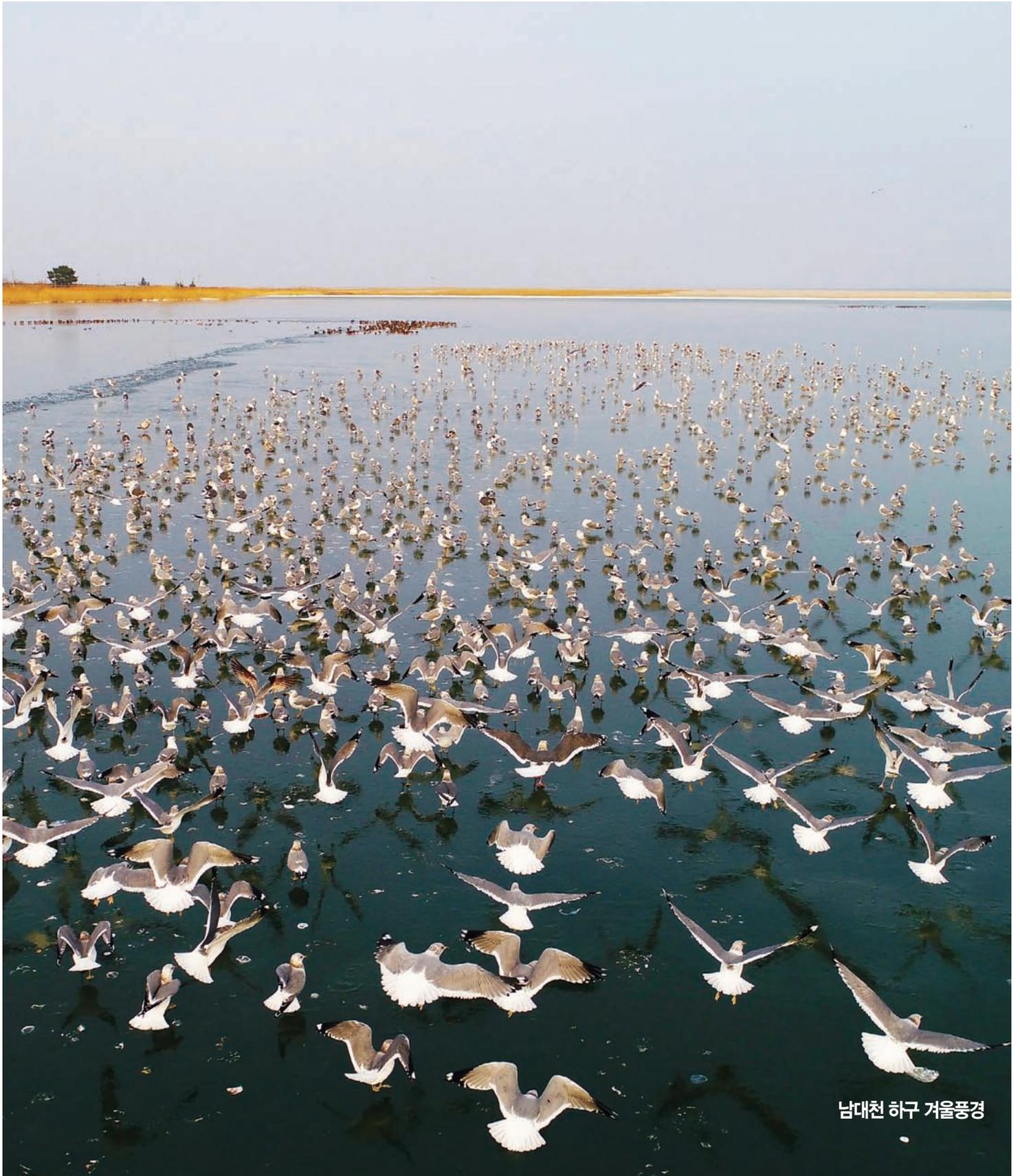
2019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양양소식

Vol. 295



남대천 하구 겨울풍경



서면 오색령 설경

양양소식

Vol. 295

CONTENTS

양양소식 · 295호

| 발행일 2019년 12월 20일 |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의기양양

- 4 10대 이슈
4 2019년 양양은 더 살기 좋아졌습니다.
- 8 뉴스브리핑
8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행복한 일상
10 강현면 새마을부녀회, 비치마켓 수익금으로 내복 전달
기사문항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사업 최종 선정
- 11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 12 의정소식 제2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개최



희망양양

- 14 기획취재 가는 해를 보내고, 새해 소망을 기원해보자
- 16 ISSUE & PEOPLE
재경양양군민회, 강원도민회중앙회 김천수 회장
- 18 숨어있는 향토사 이야기 양양지방의 바람 이야기

오감양양

- 20 발걸음 촌촌, 마을가는길 강현면 강선리
- 22 맛있는 양양여행 양양 겨울바다의 진미! 도루묵

열린양양

- 24 책이야기 랩 걸/ 이달의 신간
- 25 정보꾸러미 추천일자리
- 26 알림마당 공공기관 행정정보
- 28 공익광고

양양군정소식지 「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입니다.
구독은 jsmj4@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2019년 양양은 더 살기 좋아졌습니다

10대 issue

2019년 올해 양양은 주민들의 생활권이 개선돼 그 어느 해 보다 살기 좋은 양양이 되었습니다. 오랜 숙원이었던 종합터미널 이전 계획이 추진되고, 도시 계획도로 구축, 낙산 군 관리 계획의 진행 등으로 도시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면, 양양에서도 영화를 볼 수 있는 작은 영화관이 개관해 주말이면 가족들과 영화를 즐기는 풍경도 생겼습니다. 그런가하면 양양의 해변 풍경도 변화했습니다. 해변의 철조망이 철거되고 서핑 특구 지정이 되면서 해양 레포츠를 즐기는 멋진 해변 관광으로 바뀌었고, 드디어 플라이강원에서 국내선, 국제선을 모두 취항하면서 관광도시 양양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올해 양양의 인구가 증가해 살기 좋은 양양, 변화 발전하는 양양이 되어 반갑고 행복한 해입니다. 올해 우리 지역의 10대 이슈, 볼까요?

01 새롭게 변화하는 낙산 기대



지난 2016년 낙산의 도립공원 해제 이후,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본 전제인 군 관리 계획이 진행중이다. 수십 년 동안 도립공원에 묶여 각종 개발과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겪었던 주민들은 새로운 토지이용 계획에 대하여 반기고 있고, 개발 사업 추진으로 낙산의 변화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02

양양의 관문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이전

양양의 관문인 양양터미널의 이전 요구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데, 드디어 양양 종합터미널이 2021년 상반기에 준공된다. 강원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 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고, 부지 매입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이행되면 터미널 이전은 본격 추진된다.

양양군 송암리 29-8번지 일원에 새로 이전하는 종합 터미널은 13,123㎡ 부지에 시설 8,989㎡, 군 계획 도로 4,134㎡ 규모로 조성되며, 인근에 양양농협 등 대규모 점포 시설이 신설된다.

1. 새롭게 변화하는 낙산 기대
2. 양양의 관문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이전
3. 양양공항에서 국내외 여행 다녀오세요.
4. 도시계획도로 확충으로 지역의 균형발전
5. 양양 웰컴센터? 웰컴!
6. 양양 농산물의 가공 생산으로 판매도 쑥쑥
7. 해변의 시원한 전망을 선물하다
8. 서프시티 양양, 사계절 레포츠 문화를 만든다
9. 안전한 양양 안심돼요
10. 살기좋은 양양으로 귀농귀촌합니다.



03 양양공항에서 국내외 여행 다녀오세요.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이 지난 11월 22일 양양-제주 간(1일 2회 운행) 국내선 취항을 시작한 후, 12월 26일 국제선 취항이 확정됐다. 양양공항에서 첫 취항하는 대만 타이베이 노선은 1일 1회 정기 운항될 예정인데, 첫 국제선 취항식에 앞서 역사적인 국제선 취항을 자축하고 타이베이 현지에서 강원 관광 홍보활동도 펼쳐진다.

04 도시계획도로 확충으로 지역의 균형발전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양양읍 송암리 국도 연결도로 등 4개소 2,090m가 신설되고, 기반 시설이 확충되었다. 신설된 도로는 국도 44호선과 국도 7호선을 연결하게 되는 양양 중로 2-9호선, 물치 교회 인근 도로 2개 구간이고, 지난해 추진되었던 '물치 반점~로터리 공원 간, 내곡리 마을회관~하이팰리스 아파트 입구, 현석상가~해오름 아파트 구간'이 마무리되었다.

또한, 동서고속도로 개통이후 유동 인구가 증가해 도로시설의 확충이 시급했던 양양교~서문교 간군계획도로 확포장 공사도 마무리돼 주민들의 교통편리가 이루어졌다.

05

양양 웰컴센터?, 웰컴!

탁 트인 전망과 볼거리, 먹을거리가 풍성하게 펼쳐지는 공간인 양양 웰컴센터가 문화와 삶의 현장이 어우러진 양양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 웰컴센터에서는 '양양 맛있는 야시장'이 운영돼,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가 있는 문화가 있는 시장으로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었고, 6월에는 '양양 작은영화관'이 개관하면서 한 달 누적 관람객 수가 4,000여 명에 이르렀다. 영화관이 없었던 양양에 작은 영화관이 개관해 군민들의 또 다른 문화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06 양양 농산물의 가공 생산으로 판매도 쑥쑥

양양군에서 재배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 생산할 수 있는 양양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신축되었다. 지상 1층 시설로 습식 가공실, 건식 가공실, 반찬 및 다용도 가공실 등이 조성되었고, 과채음료 및 농축액, 잼류, 건조, 분말, 말랭이류 등의 농산가공품을 생산 포장할 수 있도록 59종의 가공장비를 갖추었다. 또한 가공교육 시설이 있어 농업인 역량 강화 기초교육 및 심화실습교육을 진행해 농업인들의 가공센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농산물의 가공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높이는 신규 산업으로 기대된다.

08 서프시티 양양, 사계절 레포츠 문화를 만든다



양양해변 가운데 사계절 서핑 성지로 손꼽히는 현남면 '죽도·인구해변'과 서핑 전용 해변으로 유명한 현북면 '종광정리 서프비치', 강현면 '설악해변' 등 3개 지역이 사계절 서핑 거점으로 주말이면 평균 1,500여명의 서퍼들이 즐겨 찾고 있다. 또한 서핑 해변에 주말이면 61개 서핑숍이 운영되는 등 서프 시티 양양의 새로운 레포츠 문화를 만들고 있다. 그동안 여름 피서철에만 집중되던 해변 문화가 한 겨울에도 서핑을 즐기는 서퍼들로 사계절 관광 해변으로 주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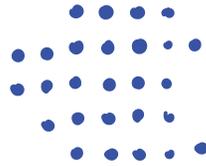
07 해변의 시원한 전망을 선물하다

2019년 양양은 더 살기 좋아졌습니다

10대 issue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양양해변의 2단계 경계 철책 철거 사업이 진행되었다. 해변이 철조망으로 둘러쳐져 있어서 접근이 어렵고 해안 전망이 막혔는데, 철조망이 철거되면서 양양의 해돋이 절경을 감상할 수 있고, 탁 트인 바다 풍경은 관광객들의 환호를 받고 있다.



09 안전한 양양 안심돼요

강원도 내 18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는 양양에 경찰서가 신설된다. 지난 1954년 양양읍 군행리에 양양 경찰서가 개설됐지만, 1963년 인군 속초가 시로 승격되면서 속초 경찰서에 흡수돼 양양에서는 지구대와 파출소만 운영되면서 수년간 치안 공백을 겪어왔다. 이에 주민들의 경찰서 설립 요구가 이어졌고, 양양군 송암리 일원에 공공 청사 용지로 입지가 선정되는 등 경찰서 신설이 본격 추진된다. 경찰서 설립으로 치안이 안전한 양양, 안심해도 좋겠다.



10 살기좋은 양양으로 귀농귀촌합니다.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도시 지역 확장과 공동주택 공급 확대, 도시재생, 경관개선 사업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매력적인 도시로 변모한 양양에 귀농 귀촌 인구가 늘고 있다.

저출산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국내의 환경 여건 속에서도 양양군은 주민등록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도로망 확충과 광역 교통 인프라 구축, 정주여건 개선 및 귀농 귀촌 선호지역, 서핑산업의 활성화 등의 영향이 크다. 또,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깨끗한 도시라는 이미지도 한 몫하고 있다. 2018년 상반기 말 기준 인구와 비교해 2019년 상반기 말 인구는 296명이 증가했다.





서면 곰마을 노래교실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행복한 일상

제4회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지난 13일 양양군 문화복지회관에서는 <제4회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로 한바탕 축제가 펼쳐졌다. 한 해 동안 배운 실력을 뽐내기 위해 한껏 갖춰입은 주민들의 얼굴은 환했다. 이번 발표회는 마을의 신명을 책임지는 최고의 끈들이 모인 현남면 주민자치센터 전통연희 동아리 '풍물패 신명누리' 공연을 시작으로 파워풀하고 신

나는 양양을 YOU& 공연팀이 건강체조를, 25명의 미소천사의 행복한 멜로디 서면 곰마을 노래교실팀의 공연이 펼쳐졌으며, 60~70대 초보회원들이 준비한 설레임가득한 손양면 댄스스포츠로 흥을 더해갔다. 이어 한달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습한 현북면 노래교실팀의 공연이 이루어졌고 마지막으로 절제된 동작과 북만으로 리드미컬



현북면 노래교실





양양읍 YOU&



손양면 댄스스포츠

하고 경쾌한 매력을 선사한 강현면 난타교실팀의 공연이 이어졌다. 각 팀들은 1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최선을 다해 선보이고 응원단의 열띤 박수가 쏟아지며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1999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우리군의 경우 현북면에서 10여 년 전에 시범적으로 운영되어 2014년부터 양양읍, 강현면에 이어 2015년 서면, 손양면, 현남면 등 전체 6개 읍면으로 확대돼 올해 4회째 발표회를 열었다. 이에 지난 '제12회 강원도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에서 라인댄스와 농악이 어우러진 현남면 파워퀸팀이 금상을 수상하는 큰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마을을 위한 마을공동체사업을 진행하며 마을의 공동의 목표를 함

게 이루어간다. 여기에 주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 매년 초에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의견을 묻고,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7,8월 피서철을 제외하고는 일 년 내내 지역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는 양양군 6개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 700여 명이 37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2020년 프로그램은 2월중 수강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주체가 되고 있으며, 서로 생활정보를 교환하고 취미활동을 하며 주민들의 행복한 일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강현면 난타교실



현남면 신명누리, 파워퀸팀

양양군 강현면새마을부녀회, 비치마켓 수익금으로 어르신 내복 전달 훈훈

비치마켓@양양이 양양의 대표 문화관광콘텐츠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비치마켓에 참여했던 사회단체 셀러가 지역에 훈훈한 온정을 전달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강현면새마을부녀회(회장 이금선)는 올해 4월부터 “강원도”와 “양양”을 홍보하고 대표할 수 있는 품목인 생(生)감자전, 산나물전 품목으로 비치마켓@양양에 참여해왔다.

수익금이 생기면 지역에 환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생업과 고령화 등으로 참여할 수 있는 회원들이 적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4월부터 11월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후진항에서 열린 비치마켓@양양에 셀러로 참여했으며 특히 화장실 청소 등 굿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해왔다.

12월 2일 오전 10시, 강현면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은 4월부터 11월까지 판매금액 중 재료비와 최소한의 경비 등을 제외한 수익금으로 강현면 지역 내 어렵게 지내는 어르신 46분(23개 마을에 각 2벌)에게 전달해달라며 강현면이장협의회에 내복 46벌을 전달했다.

이금선 강현면새마을부녀회장은 “비치마켓@양양이 후진항은 물론 양양지역 관광,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양양을 홍보하는 역



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셀러로서 참여하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양양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향토의 맛을 전달하는 비치마켓 셀러로서 최선을 다해 참여하고 지역봉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문항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사업 최종 선정

해양수산부 주관 2020년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서 기사문항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72억원을 확보했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2022년까지 전국 어촌·어항 300개소를 선정하여, 낙후된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의 통합개발을 추진하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으로 강원도내에서는 우리군 기사문항을 포함해 5개 어촌이 선정됐다.

우리군은 그동안 사업참여 희망 어촌마을에 대한 자체 심사를 거쳐 주민 중심 지역협의체 구성 및 의견 수렴, 전문용역사 자문을 거쳐 지역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특성화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9월 해양수산부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거쳤다.

이번에 해양수산부에서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기사문항은 서핑, 조도 주변 해양보호구역, 38선 평화마을을 모티브로 10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어촌체험센터, 해양보호구역 전망타워, 38선 평화의 길 등을 조성함과 아울러 강원도 지방어항 개발 등 타부처 사업과도 연계함으로써 어업과 해양관광이 공생하는 생



동감 넘치는 미래형 어촌마을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우리군은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인프라 및 콘텐츠를 확충하여 어촌·어항에 대한 재생 및 해양관광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을 명소화하고, 일자리 창출, 방문객 유입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예정이다.



📷 사진으로 보는 양양의 이모저모

1. 울거울 당신의 사랑을 선물 할 때입니다. 희망2020나눔캠페인
2. 우리쌀빵으로 든든한 아침! 양양생활개선회원들의 쌀빵 나눔 행사
3. 손양면 학포리가 기업형 새농촌 우수마을로 선정 되었어요.
4. 서면 오색리 설악오색가마터 도자기 전시회
5. 강현 물치항에서 도루묵축제가 열렸어요!
6. 양양소방서 문화체육의 날, 양양작은영화관에서 문화를 즐기다!
7. 기축전염병 사전예방! 축산차량은 거점세척소독시설에서 꼭 소독 하세요~!





제2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개최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운영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심의의결



양양군의회(의장 고제철)는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 2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비롯해 21개의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다룸으로써 숨 가쁜 의정활동을 펼쳤다.

정례회 첫 날인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고제철 의장의 개회사와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양양군수의 시정연설이 있었으며,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종 현안사업 등이 내실 있게 집행됐는지 군민의 눈으로 보고, 군민의 위치에서 꼼꼼히 점검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철)는 행정의 일부 정체된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사항 14건, 개선사항 79건, 권고사항 45건 등 총 138건에 대해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12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귀선)에서는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의원들은 재정운영의 건전성, 적정성, 경제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비효율적이고 시기적절치 않은 일부 예산에 대해 수정의결했다.

의원들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16,086,331천원 중에서 총12건에 890,550천원을 감액하며, 우리군 역점시책 추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철)는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을 포함한 조례안 21건을 심사하였으며 12월 19일 개최하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 후 30일간의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고제철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를 마무리하고 2020년도 새해를 설계하는 제244회 정례회를 통해 군민들이 의회에 부여 해주신 군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보다 정제되고 투명한 소통으로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양양의 미래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가는 해를 보내고 새해 소망을 기원해보자 양양의 일출명소

아직 많은 날이 남아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달이다.
나에게 지난 1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 돌아켜본다.
언제나 그렇듯 한해를 보낼 때면 좋았던 일보다 후회되는 일이 떠오른다.
2019년, 지난 1년을 제대로 갈무리 하고 싶어 양양의 바다를 찾는다.
양양은 7번 국도를 따라가면 장소마다 특유의 매력을 지닌 바다 일출이 장관을 이룬다.
오늘 양양의 바다에서 가는 해를 멋지게 보내며, 2020년 새로운 소망을 기원해보자.

낙산 해변

주민과 관광객에게 가장 유명한 곳이자 사랑받는 일출명소는 낙산해변이다.
4km에 이르는 넓고 긴 백사장을 가진 낙산해변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수평선을 바라볼 수 있어서 특별한 일출 포인트가 필요 없다.
해맞이 축제가 열리는 곳으로 1월 1일의 시작과 함께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지고, 연등달기, 새해소망풍선 날리기 등의 새해 소망을 기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관음성지 낙산사에서 1월 1일 정각에 울려 퍼지는 타종소리를 들을 수 있고, 천년 세월의 숭고함을 느낄 수 있는 낙산사 의상대 일출은 그 자체로 경이롭다. 동해신(東海神)이 모셔진 동해신묘 또한 낙산해변에 위치해 있는데 관음성지와 동해신의 기운이 서린 낙산해변에서 새해 소망을 기원해보시길.



기사문 해변 삼형제 바위

현북면에 위치한 기사문항구는 송이등대와 조도 사이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다. 새벽이면 항구에 도착한 배들로 정신없이 바빠지기 시작한다. 소박하지만 독특한 겨울 풍경을 선보이는 기사문항구는 여행 마니아들에게 인기가 높다. 또한 걸으면 기이한 소리가 난다고 기사라 불리는 기사문항의 해변은 겨울에도 파도를 즐기는 서퍼들을 볼 수 있다. 기사문해변에서 오른쪽 해변 끝 삼형제바위라 불리는 갯바위 위로 떠오르는 태양은 이미 사진작가들 사이에서 유명한 일출 포인트이다. 지난 11월 19일 'KBS 2TV생생정보에서 미스터Lee의 사진한컷, 대한민국' 코너에 이곳 삼형제 바위 일출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KBS 2TV생생정보에서 미스터Lee의 사진한컷, 대한민국'



하조대

하조대는 조선시대의 공신 하륜과 조준이 은거하였던 곳으로 두 사람의 성을 따서 이름 붙여졌다. 애국가에 나오는 소나무, 일명 애국송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수백 년의 세월을 척박한 바위에 뿌리 내리고 바닷바람을 견뎌낸 애국송을 배경으로 한 일출은 자연 앞에 놓인 사람을 겸허하게 만든다. 등대와 정자가 가까이 마주하고 있는데, 뒤로 펼쳐진 푸른 바다와 어우러져 그림같은 풍경을 연출한다. 사진작가들에게 등대나 애국송을 배경으로 한 여행 사진 촬영지로 인기가 높다.

물치항 송이등대

이제는 꽤 유명한 일출명소가 된 물치항에서는 두 개의 송이등대와 그 사이 수평선에서 올라오는 해를 감상할 수 있다. 양양주민에게 송이등대는 낯익지만 타지역에서 온 관광객이라면 물치항 일출은 색다른 선물이 될 듯하다. 물치항은 싱싱한 회를 맛볼 수 있는 활어센터가 있어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다. 물치항과 이어진 해파랑길을 걷다보면 바다에 떠다니는 배와 갈매기, 몽돌 해변 등 아기자기한 볼거리가 많다. 운이 좋으면 수온 변화로 생기는 겨울 물안개가 환상적으로 피어오르는 장면을 볼 수 있다.

<글 : 편집부 / 사진 : 양양군SNS 안영국 기자>



재경양양군민회, 강원도민회중앙회 김천수 회장

고향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고 싶다

“지금도 시간 날 때마다 양양에 갑니다.
아주 좋지요.
고향이니까요.”

태어나고 자란 고향은 떠나도 떠난 곳이 아닌가 보다.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열심히 살면서도 늘 마음은 고향에 두고 있다고들 하니까. 고향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여 온 김천수 재경양양군민회 회장도 늘 마음은 고향에 있다. 군민회장으로 서 양양에서 크고 작은 일들에 뜻을 모으는데 앞장서 온 까닭이다. 그런데 이번에 강원도민회중앙회장으로 추대돼 양양뿐 아니라 출향 강원도민들의 힘을 모으고 지역 인사들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그동안 김천수 회장의 고향 양양에 쏟은 애정과 관심이 더욱 증폭돼 출향 강원도민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의 고향은 양양

서문리에서 태어나 양양중·고를 졸업한 양양 사람 김천수 재경양양군민회장은 2013년부터 군민회장을 맡아 왔다. 군민회장을 맡으면서 지역의 인재육성이나 이웃 돕기 등을 더욱 활발히 하고, 회원들 간의 단합을 도모해 그 어느 지역의 향우회보다 더 열성적으로 고향사랑을 보여 왔다. 양양군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서울로 초청한 것은 지역의 희망인 어린이들을 위한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인재양성이라는 의미를 높였기 때문이다. 또한 후원행사로 매년

‘사랑의 연탄 나누기 1만 장 기부 행사’를 비롯해 양양 꿈나무 희망캠프, 청바지 1만 장 기부 등 다양한 기부행사를 진행해 왔다.

고향사랑을 실천해 온 활동을 인정받아 지난 2016년 제20회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애향 부문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강원도 선행도민대상」은 도내 사회 각 부문에서 선행의 귀감이 되는 모범 도민을 매년 5개 부문에 각 1명씩을 선정·시상하고 있는데 김천수 회장이 애향부문에 선정될 정도로 열심히 고향사랑을 실천해 온 덕분이다.



강원도민들의 힘을 모으고 실천합니다.

그동안 양양군민회를 이끌면서 강원도민회중앙회 수석부회장으로서 강원도민의 연대를 맡았던 김천수 회장이 차기 제15대 강원도민회중앙회장으로 추대됐다. 내년 1월16일 도민회 정기총회 승인을 거쳐 차기 도민회장에 취임한다.

강원도민회중앙회는 경제계, 학계 등 각계각층의 출향인사들이 지역의 발전을 다짐하고 현안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장이다.

또한 출향인사와 지역인사들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전국에 있는 강원도민들을 하나로 묶어 고향 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강원도민회중앙회는 강원도의 발전을 위한 자리에서 특히 빛을 내는데, 11월에 열린 제8회 강원푸드박람회에 홍보대사를 자처하며 당시 강원도민회중앙회 수석부회장이었던 김천수 회장도 참여해 홍보 활동을 펼쳤다.

10월에는 200만 출향 강원도민이 함께 하는 2019 출향강원도민 한마음 대축제가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렸는데, 재경 18개 시·군민회 및 50여 개의 지역 도민이 모였다. 김천수 회장을 비롯해 재경양양군민회도 참여해 단합된 힘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강원도민으로서 전국 곳곳에서 고향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출향도민들의 화합은 고향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이제 강원도민회중앙회장으로서 그 중심에선 김천수 회장의 남다른 고향 사랑이 더욱 깊어질 것 같다.

고향으로 와야지요.

(주)바른식 대표로 활발하게 사업을 하면서도 재경양양군민회를 이끌고 나아가 강원도민중앙회장을 맡게 되었으니 그 역할이 더욱 무거울 것 같다. 강원도민들의 화합을 모으며 회원들 간 활발한 소통, 화합을 통해 고향 발전에 힘쓰겠다는 의지가 있으니 충분히 해 낼 것이다.

기업을 운영하며 군민회를 맡아 바쁜 일상이지만 시간 날 때마다 양양에 온다는 김천수 회장은 은퇴 후에는 당연히 고향 양양에 와 살겠다고 한다. 짧고도 단단한 이 말처럼 고향 양양에 대한 애정이 물씬 풍겨난다.

김천수 회장은 이제 양양뿐만 아니라 출향강원도민을 대표 하면서 더불어 고향사랑을 실천하는데 더욱 큰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향의 발전을 위해 늘 기쁘고 즐겁게 참여한다는 김천수 회장의 고향사랑이 남다른 덕분이다.

〈글·사진 : 편집부〉



양양지방의 바람 이야기

양양의 봄은 봄바람으로 시작한다. 양지쪽에 눈이 녹고 봄바람이 불면 새싹이 돋아난다. 그러다 강풍으로 돌변하면 많은 시설물을 파괴하고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 특히 산불이 발생하면 강풍으로 인해 불덩이가 날아다니며 이산 저산에 불을 옮겨 건잡을 수 없이 엄청난 피해를 준다.



석성산

양양의 풍신(영등신)

양양지방에서는 ‘바람님’이라 하여 풍신(風神)을 모시는 음력 2월 1일을 ‘영등날’, ‘영동날’, ‘바람님날’이라 부른다. 영등신은 할머니로서 2월 1일 내려왔다가 2월 15일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며 영등신을 따르는 수부신은 20일에 올라간다고 말한다. 이날은 새벽에 주부는 우물에 가서 정화수(井華水)를 길어 장독대에 놓고 소반위에는 오곡밥과 탕, 어물 등을 차려놓고 하늘에서 내려온 풍신 할머니에게 1년간 풍화(風禍)가 없도록 빌고 2월 15일은 풍신 할머니가 승천하므로 이날도 1일과 같이 차려놓고 빈다. 2월 초순에 비가 오면 ‘물영등’이라 하여 풍년이 들고 강풍이 불면 ‘바람영등’이 내려와 흉년이 든다고 했다. 영등할머니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며느리와 함께 오면 비가 오고, 딸을 데리고 오면 바람영등이라 한다. 그 이

유는 비가 오면 며느리 옷이 젖어 밍게 보이게 함이고, 바람이 불면 다홍치마가 바람에 날려 예쁘게 보이기 때문으로 고부 갈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날 어촌에서는 출어를 하지 않고 영등신을 바람님, 풍신, 바람할머니라 부르며 제사를 지낸다.

양간지풍(襄杆之風) 통고지설(通高之雪)

서기 1751년 택리지에서 조선 후기 실학자 이종환은 ‘통고지설 양간지풍 일구지난설(通高之雪 襄杆之風 一口之難說)’ 즉 ‘고성과 통천지역은 눈이 많이 오고 양양과 간성지역은 바람이 강한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고 하였다. 그러나 양양과 강릉지방에서는 통속적으로 양강지풍통고지설(襄江之風通高之雪)이라 불러왔다.

양간지풍의 특성은 ‘강한 바람’과 ‘고온건조’다. 양간지풍의 위

력은 태풍을 능가한다. 봄철에 양양지방과 간성사이에서 부는 바람은 영서지방에서 영동지방으로 부는 국지풍으로 고온건조하고 풍속이 빠른 특징을 보인다.

'양간지풍은 산불이나 대형 화재의 원인으로 주목받아왔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에도 성종 20년(1489)의 대화재와 낙산사 화재 이후 양양, 강릉, 삼척 등 일대에 산악지역과 민가를 모두 태우는 봄철 대형 화재가 자주 발생했음이 기록되어 있다. 기록 가운데에 '산화폭발(山火爆發)', '산화치열(山火熾烈)', '화괴비무(火塊飛舞)'같은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국지적 돌풍이 화재의 확산에 바람이 큰 영향을 주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임천리 철수혈의 전설

어느 때인가 양양부사가 부임해 보니 어찌나 바람이 심하고 강한지 농작물이 제대로 크지 못할뿐더러 설사 결실은 했다 하더라도 바람에 다 떨어져 버려 농민은 1년 내 농사를 짓고도 굶어야 할 형편이었다. 새로 부임한 부사가 가만히 생각하니 이 고을 사람을 잘 살게 하자면 바람을 막을 수밖에 없으니 강풍의 진원지가 어딘지 알아보아야겠다고 정사에 앞서 바람의 근원을 찾아 나섰다.

사또가 바람이 불어오는 서쪽 방향으로 거슬러 석성(石城)이 있는 녹문산(현재 임천리 석성산)의 정상에 올랐으나, 바람이 생겨나는 곳이 진원지가 어디인지 그 장소를 알 수 없다. 이리 저리 찾다보니 석성(石城)에는 10여 개의 혈(인근 동민은 철수혈이라 함)이 있다. 귀를 기우리고 자세히 들어보니 이 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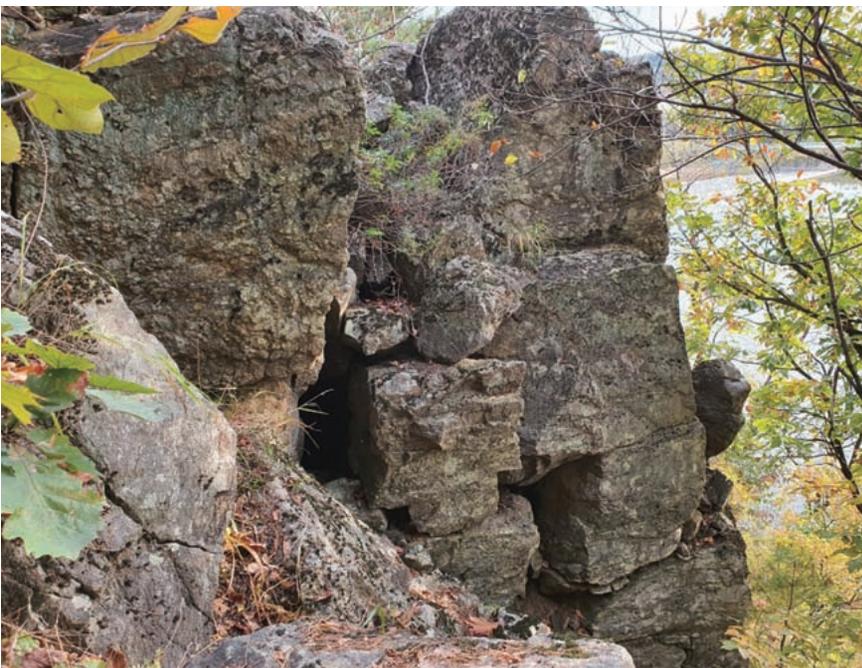
(穴: 구멍)마다 안에서 바람이 나오는 소리가 나기에 부사는 바람의 진원처가 바로 여기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을 안 사또는 동민을 동원시켜 큰 바윗돌을 가져다가 10개의 혈을 다 막아버렸다.

그리고는 "이제 양양에는 큰 바람이 불지 아니 할 것이며 농사도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돌아왔다. 사또가 돌아오는 동안에는 바람이 잠잠하더니 부중(府中)에 돌아와 동헌(東軒)에 올라서니 전에 일찍이 겪지 못했던 큰 바람이 또 불기 시작했다.

혈의 당처에 바윗돌로 막아 이제 바람이 안 불 터인데 이상하다고 생각한 그는 사람을 시켜 그곳에 가보라고 했더니 갔다 온 사람이 말하기를 "굴을 막았던 돌은 다 넘어지고 혈은 옛 모습대로 이었습니다."하고 보고하기에 사또는 방법이 잘못 되었음을 깨닫고 관원과 동민을 데리고 다시 그 굴에 가서 이번에는 혈을 막지 아니하고 제물(祭物)을 차려 혈마다 제사를 지냈다. 그 뒤로부터 바람이 잦다 한다. 이에 유래하여 양양에서는 큰바람이 불기만 하면 이곳 철수혈(鐵口穴)에 와서 제를 올렸다고 하며 이 혈을 신혈(神穴)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편 역사적 고찰에 의한 양양산불은 봄 4월에 국지강풍이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양양은 항상 불조심을 생활화하지만 특별히 봄에 불조심해야 한다. 그렇지만 양양의 바람은 해돋이 바람, 산 향기 바람, 여름은 피서 힐링 바람, 가을은 오색단풍바람, 겨울은 흰 달빛 바람 모두 생기(生氣) 생겨(生居)의 바람이다.

〈글·사진 : 문화원〉



철수혈



철수혈 제단

村村

발걸음 촌촌,
마을가는길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 두 나무가 하나로 자라듯이 화합하는 마을
- 북양양 IC 진입 마을로 교통 편리해져.
- 도내에서 가장 큰 마을, 아름다운 마을을 계획하다.



마을마다 마을을 들어서는 입구에는 수호목(守護木)이 있어 주민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곤 한다. 강선리에도 수령이 약 200여 년에 이르는 ‘마을 나무’가 있는데, 특이하게도 ‘소나무와 엄나무’가 각각 한 몸인 듯이 자생하고 있다. 마치 원래 마을 토박이들과 새로 이주해오는 아파트 주민들이 조화를 이루어 가듯이, 하나인 듯 두 나무인 마을 수호목 덕분에 강선리 주민들은 마을을 잘 지켜가고 있다.



도내에서 가장 큰 마을

강선리는 규모가 큰 마을이다. 560여 가구 1,004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는데 귀촌인을 비롯하여 마을로 유입되는 인구가 양양군 내에서는 최고점을 찍고 있다. 강선리가 여러모로 빠르게 변화하는 것은 북양양 IC가 마을 초입에 생기면서 마을 앞 도로가 군도1호선이 될 정도로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덕분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2개 반(9·10반)이 늘었고, 50여 가구의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되는 등 인구유입으로 단일마을로는 도내에서 면적이 가장 큰 마을이 되었다.

원래 강선리는 ‘어머니가 아름으로 마을을 품고 있는 생김새’라고 하여 정감 어린 경치를 담고 있는데, 특히 쌍천과 물치천이 마을을 감싸고돌면서 4계절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준다.

아름다운 마을 강선리를 더욱 돋보이게 한 것은 2016년부터 2018년 동안 마을 공유지를 활용한 「마을 경관 사업(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을 진행한 덕분이다.

「강현면 강선리 100년 계획」으로 진행된 마을가꾸기 사업은 2018년의 강선리의 단장된 모습과 아울러 100년 후 강선리가 더욱 녹음이 짙은 살기좋은 아름다운 마을로 변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마을 경관 가꾸기 사업」을 통해 지난해 성과를 냈는데, 주민들은 마을 공원이 생기고 길이 확포장 되자 살기 좋아졌다며 반기고 있다. 이러한 마을경관사업을 주도해 온 김철래 이장(65세)은 6년 차 마을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 강선리가 다른 마을과는 달리 마을 경관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마을 공동체의 소득사업도 중요하지만, 마을을 아름답게 살기 좋게 가꾸는 일이 주민들의 자부심과 마을에 대한 애정을 갖는데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전해오는 이야기로 “신선(神仙)이 마을로 내려와 잠시 강선정(降仙亭)에 머물러 굽이치는 강물과 푸른 들녘을 감상하고, 설악산 비선대(飛仙臺)로 날아갔다”라는 마을의 유래를 들어온 토박이답게 ‘강선리’에 애정이 깊은 마을 지킴이다. 김철래 이장은 올해 말까지 임기로 6년간 마을일을 맡아왔는데, 내년에도 이장을 맡을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누가 마을일을 맡더라도 아름다운 강선리의 유래처럼 마을을 잘 가꿔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아름다운 강선리가 인구가 늘고 있

지만 큰 마을이어서 ‘마을인심’마저 흐려질까 걱정스럽다고 했다. 특히 농촌이거나 어촌, 산촌이라는 특색없이 다양한 생업으로 이루어진 강선리는 여느 마을과는 달리 주민들이 단합하기가 쉽지 않은 까닭이다.

그래도 마을주민들이 가장 단합된 모습은 매년 어버이날 볼 수 있다. 농어촌 마을 대부분이 고령층이듯이, 강선리도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매년 어버이날이면 어르신들을 모시고 서로 안부를 전하고 건강을 축원하면서 마을 주민들은 즐거이 잔치를 벌인다. 이러한 자리가 계속 되기를 바랄 뿐이다.

마을에서는 어르신들의 지혜와 손맛을 되살리기 위해 견학과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소규모 일거리 만들기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다른 마을의 사례를 견학하고 마을일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강선리의 마을초입에는 정미소가 자리하고 있어서 벼를 찧고 작업하는 모습이 보기에도 풍요로워 보인다. 아름답고 먹거리가 풍요로운 마을이 든든하고 보기 좋다. 오래 삶의 문화를 담고 있는 마을은 사람의 인정을 통해 더 오래가듯이, 강선마을도 인심 좋고, 살기 좋은 마을로 거듭 변화와 발전으로 이어지길 희망해 본다.



강선리 김철래 이장



〈글·사진 : 편집부〉



누가 그랬나! 말짱 도루묵이라고...

양양 겨울바다의 진미! 도루묵

양양의 겨울바다가 주는 음식문화에서 모두에게 이구동성으로 환영 받는 생선이 제철이다. 사라진 명태를 대신해 겨울철 별미를 대표하는 국민생선으로 양양 겨울바다의 별미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도루묵이다. 본래 도루묵은 지금과 같이 귀한 대접을 받았던 생선에서 별 볼일 없는 생선이라는 억울한 처지의 유래를 아직까지 사실처럼 뒤집어 쓰고 있는 유일한 동해안 겨울바다의 별미 생선이다. 어느 시대에서는 지천으로 잡히는 대로 먹을 수 없으니, 논밭의 거름받이나 호롱불 기름으로 쓰기는 했어도 '말짱 도루묵'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쓸 만큼 천덕꾸러기 생선은 아니었다.

선조임금은 도루묵을 먹지 않았다

조선왕조실록에도 도루묵은 강원도와 함경도의 동해안에서 잡히는 생선으로 조정에 공물로 바치는 지역특산물이라고 명확하고 반듯하게 기록되어 있을 만큼, 대우를 받고 있었던 생선이었다. 하지만 도루묵을 하루아침에 부질없고 맛있는 생선이라며 결국 '말짱 도루묵'이란 말까지 생겨나게 된 사연은 피난길에 선조임금이 도루묵을 먹었다는 거짓말 때문이었다. 선

조임금이 피난길에 어느 어부가 차려 준 밥상에서 이름 모를 생선을 맛있게 먹고 나서 이름을 묻자, 어부가 '목어(木魚)'라고 했다고 한다. 난리가 끝나고 궁궐에서 들어와 다시 먹어 보니, 피난길에 먹었던 맛이 나질 않자 '도로 목어(目魚)'라고 했던 말이 '도로목'에서 지금의 '도루묵'으로 불리게 된 것이라고 하는 얼토당토 않는 거짓된 이야기가 지금까지 제법 그럴 듯하게 사실처럼 되어버린 도루묵의 처지이다. 선조는 도루묵

이 잡히는 강원도를 따라 함경도로 피난을 간 적이 없다. 서해안 끝자락으로 중국 국경 근처의 평안북도 의주로 갔기 때문에 동해안에서만 잡히는 도루묵을 본적도, 먹어 본 적도 없었다. 더욱이 조선시대에는 도루묵의 어획량도 적어 서해안에서 맛을 보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천신품목(薦新品目)할 양양의 도루묵

도루묵은 비늘이 없어 손질할 필요가 없고 비리지 않아, 구이로 해먹든 찌개로 해먹든 거부감까지 없는데, 연하고 습습하게 담백한 살맛은 누구라도 싫다고 할 게 못 된다. 더욱이 잔잔한 알불에 노릇노릇하게 굽기라도 하면 한 입 크기로 스스로 줄어들 줄 알고, 찌개로 끓였을 때 역시, 딱 두 입 크기로 스스로 더욱 부드러워지니 이만하면, 천신품목(薦新品目)에 들 만하여 인생음식처럼 꼭 먹어야 할 겨울 생선이다.

십 수 년 전, 그물코가 보이지 않을 만큼 하얗게 잡을 때는 저장시설이 마땅치 않아 마당 앞의 눈구덩이 속에 묻어 두고 한

겨울 반찬거리로 요긴하게 먹기도 했었다. 특히, 수놈은 손질할 것도 없이 통째로 말려 두었다가 간장양념장을 뿌려 짭조름하게 조림도 해 먹고, 한소끔 찌서는 손으로 찢어 가며 양념장에 찍어 먹고, 송덩송덩 대파를 넣고 소금 간으로 시원하고 담백하게 끓인 '도루묵 맑은탕'도 좋고, 굵은 소금을 뿌려가며 숯불에 노릇하게 굽는 '도루묵 구이' 도 빼 놓을 수 없는 일미(一味)이다. 흔히 '알배기'라고 부르는 암놈은 무조건 '간장양념 조림용'이나 '찌개용' 감으로 제 격이다. '알배기'는 굵거나 조림을 하더라도 점액질이 진득하게 입속까지 깔려 오는 탓에 싫어하기도 하지만 정작, 툭툭 터지는 알을 먹는 재미 보다는 피부 탄력에 효능이 탁월하다고 하니 반드시 먹어 두어야 할 진품이다. 무엇으로 어떻게 먹든 도루묵은 버릴 것도 없고, 손질할 것이 없어도 담백한 맛을 그럽게 해주는 대표적 양양 겨울바다의 천신품목이다. 그리고 겨울바다가 보고 싶어 훌쩍 찾아 온 양양에는 은빛 도루묵이 있다.

〈글·사진 : 강원도외식저널 대표 황영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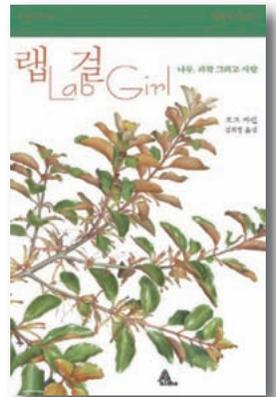
책 이야기

“나무, 과학 그리고 사랑”

이 책은 식물학자인 호프 자련이 자신의 삶과 자연의 여러 부분을 비교하며 삶과 사랑, 연구의 의미를 발견해나가는 과정을 담은 책입니다.

식물의 입장에서 식물을 연구하는 여성 과학자가 권위적인 과학자들 틈에서 생존하려 노력한 생생한 경험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이야기라 흥미진진합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일대기를 식물의 한살이에 비유함과 더불어 생의 분기점을 식물의 구성 요소에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저자의 인생 이야기가 나무, 풀, 꽃, 이끼 등의 식물 이야기와 절묘하게 어우러져 읽는 내내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신의 이야기와 자신이 아는 이야기를 전하는 데 집중합니다. 떡갈나무에는 떡갈나무의 방법이 있고, 참과 쇠뜨기에 그들만의 삶이 있다고 다정다감하게 전합니다. 또 자신의 아픈 이야기마저 솔직히 털어놓습니다. 이 책에 담긴 그녀의 진솔한 자기 성찰과 따스한 시선을 통해 삶과 과학 그리고 식물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문득 이 책이 작가의 삶이 거칠게 쓰인 한편의 연구 보고서와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책 속 밑줄 긋기 = 『식물을 다루다 보면 자주 겪는 일이 시작과 끝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식물은 반으로 갈라놔도 뿌리는 몇 년을 더 살 수 있다. 위를 모두 잘라낸 나무의 등치는 다시 온전한 나무로 자라기 위한 시도를 매년



랩 걸 / 호프 자련 지음 / 알마 / 2017

더불어 읽으면 좋은[冊]

- 정재승의 과학 콘서트
정재승 지음, 어크로스, 2011
- 위험한 과학책
랜들 먼로 지음, 시공사, 2015
- 깃털 도둑
커크 윌리스 존슨 지음, 흐름출판, 2019

하고 또 한다. 등치의 안쪽은 잠든 싹으로 가득하다. 곁에서 보는 것보다 거의 두 배나 되는 싹들이 깨어날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다. 싹은 줄기로, 줄기는 잔가지로, 그중 운이 좋은 잔가지는 굵은 가지로 크고, 건강한 굵은 가지는 몇십 년을 버티면서 결국 이전만큼 녹음이 우거진 나무로 성장한다. 어쩌면 누군가가 베어버리려고 한 것 때문에 더 우거진 나무가 될지도 모른다. 전체가 하나로 기능을 하는 동물들과 달리 식물은 모듈로 만들어져서 전체는 모든 부분의 합과 정확히 일치한다. 나무는 전체를 모두 벗어던진 후 대체할 수 있고, 몇백 년에 걸쳐 나무들은 평생 그 일을 되풀이해왔다.]

〈양양교육도서관 사서 이순형〉

사서가 추천하는 이달의 [신간]



나는 내 나이가 참 좋다

메리 파이버 지음/ 이퍼블릭 / 2019

이제 70세가 된 작가 메리 파이버는 본인의 경험과 심리치료사로서의 이력을 심분 녹여, 여성의 노년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특히 여성은 연령차별주의와 외모지상주의라는 극복과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아픈 가족에 대한 부양 의무감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상실감 등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이러한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리더라도 세월을 통해 쌓아온 성숙함과 내적인 단단함을 발휘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나이가 들어서야 느낄 수 있는 기쁨과 행복도 있다고 말합니다.



어린이 아트 스킵

앤 케이 지음 / 시공주니어 / 2019

고대 동굴 벽화에서 오늘날의 현대 미술과 디지털 미술에 이르기까지 미술 사조의 시대별 흐름과 특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의 장점은 표현 기법과 주제, 그것을 표현하는 색과 재료, 미술의 거의 모든 요소를 다양하게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는 점입니다. 미술 관련 지식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아이들에게 다양한 흥미를 유발합니다. 특히 책에 실린 120여 개의 생생한 도판과 명확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질문들을 통해 아이들은 미술 작품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자신만의 시각으로 즐겁게 감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양군일자리지원센터 추천 일자리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에너지과
TEL. 033)670-2289
FAX. 033)670-2303

사업장명	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시원안전산업	1명	금속가공제품 생산직	09:00~18:00 (주5일)	월200만원
㈜디엠에스 (쓸비치)	10명	룸메이드	09:00~18:00 (주5일)	연2,390만원
새한자동차공업사	2명	자동차정비원 (경력자)	09:00~18:00 토:12시까지	월280만원
㈜매홍엘앤에프	3명	누룽지 생산직	3교대근무	월200만원
주식회사 한원	1명	토목시공기술자 (토목기술자 중급이상)	08:00~17:00 (주6일)	월370만원
㈜세인	1명	용접원 (용접기능사 필수)	08:00~18:00 (주6일)	월250만원
디엠면세점	2명	면세점판매원	시간협의 (주5일)	시급8,350원이상
바다마을아파트	1명	미화원	09:00~12:00 (주6일)	월90만원
광운통신(주)	1명	방송.통신.인터넷케이블 설치수리원	09:00~18:00 (주5일)	월180만원

▶ 양양군 일자리지원센터와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수시로 구인, 구직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이일의 추천 일자리는 2019년 12월 16일 기준 구인정보이며, 업체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당신,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은 재활용품 분리한 후 요일별로 지정된 품목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장소에 배출합니다.
- 타는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 안타는 쓰레기는 종량제 마대, 대형폐기물은 읍·면 사무소에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발부받은 스티커를 부착한 후 배출합니다.
- 재활용품은 품목별(종이, 병, 캔, 플라스틱, 고철)로 분류하여 한 데 담거나 묶어 배출해야 합니다.
- 쓰레기는 일요일~금요일 일몰 후 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 배출합니다.
- 재활용품 분리배출 위반,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소각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19년 과태료 부과 내역

연 번	성 명	부과금액	부과내용
1	이**	1,000,000	생활폐기물 매립
2	장**	100,000	쓰레기 불법투기
3	이**	500,000	쓰레기 불법소각
4	박**	200,000	쓰레기 불법투기
5	박**	200,000	쓰레기 불법투기
6	김**	200,000	쓰레기 불법투기
7	전**	200,000	쓰레기 불법투기
8	마**	200,000	쓰레기 불법투기
9	이**	200,000	쓰레기 불법투기
10	김**	200,000	쓰레기 불법투기
11	남**	200,000	쓰레기 불법투기
12	하**	500,000	쓰레기 불법투기
13	장*****	1,000,000	생활폐기물 매립
14	유**	500,000	쓰레기 불법투기
15	김**	200,000	쓰레기 불법투기
16	장**	200,000	쓰레기 불법투기
17	이**	500,000	쓰레기 불법소각
18	김**	200,000	쓰레기 불법투기
19	김**	100,000	쓰레기 불법투기
20	김**	100,000	쓰레기 불법투기
21	손**	100,000	쓰레기 불법투기
22	마**	100,000	쓰레기 불법투기

도로 무단횡단 예방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적극 동참합시다.

■ 안전한 보행요령

- 길을 걸을 때는 보도나 길 안쪽으로 통행
- 주차된 장애물 때문에 차도로 걸어야 할 때는 주변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핀 후 통행
- 골목길에서는 들어가고 나가는 차가 있으므로 멈춰서서 좌우를 살핀 후 통행
- 정지한 차의 앞이나 뒤로 지나갈 때에는 차의 움직임에 유의하며 통행

■ 도로를 건널때

- 도로를 건널 때는 횡단시설을 이용(원칙)
 - 횡단보도 이용 시 우측에서 좌측으로 통행
- 항상 신호를 지키는 습관을 생활화
- 신호를 기다릴 때 차도에 내려서 있으면 위험
- 자동차가 정지하는 것을 확인한 후 건너감
- 횡단시설이 없는 곳에서 길을 건널 때에는 더욱 주의
 - 차량의 속도는 보행자가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빠름
 - 60km/h 주행 시 1초당 운행거리 : 17m
 - 100km/h 주행 시 1초당 운행거리 : 28m

■ 승·하차때

- 차에서 내릴 때는 차 옆으로 주행하는 오토바이에 주의

■ 어린이와 함께 할 때

- 길 건너편에서 어린이를 부르는 것은 위험
 - 좌우를 살피지 않고 부르는 쪽을 향해 달려올 수 있음

■ 야간 및 눈·비울 때

- 야간에 횡단시설이 없는 곳에서 도로를 건널 때에는 가로등이 켜진 곳으로 통행
- 야간 보행 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밝은 옷 착용
 - 가시거리 : 어두운옷(30m), 밝은옷(100m), 반사지(2km)
- 눈/비가 올 때에는 눈길에 미끄러지거나 우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

※ 자동차가 보행자를 치는 경우, 시속 32km에서는 보행자의 5%, 48km에서는 45%, 64km에서는 85%가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됨(영국 교통연구소, TRL)

※ 무단횡단 벌칙(도로교통법 제157조(벌칙))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자료제공 :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페스트 예방 및 행동수칙 안내

질병관리본부는 중국에서 페 페스트 확진환자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신속위험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아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단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치료를 위한 항생제가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 등 현 단계에서의 대응 역량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

1. 페스트 개요

감염경로 : 페스트균에 감염된 쥐벼룩에 물려 감염, 감염된 야생동물의 취급 하거나 페 페스트 환자의 비말을 통해 감염 가능

잠복기 : 평균 1 ~ 7일

주요증상 : 림프절페스트(림프절 부종 및 종창, 발열, 빈맥 등), 폐페스트(폐렴 증세, 오한 발열, 객혈 등), 패혈증페스트(구토, 설사 등 소화기증상, 급성호흡부전, 신부전, 의식저하 등)

치료 : 항생제 치료

2. 페스트 예방 및 행동수칙

예방수칙 : 개인위생(손씻기, 마스크 사용)수칙 준수,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등 점막부위 접촉 삼가

(유행지역 여행 시 주의점)

- 여행전 페스트 유행지역 확인(2019년 11월 현재, 마다가스카르 오염지역으로 지정)
- 아프리카 등 유행지역에서 쥐나 쥐벼룩, 야생동물의 사체 접촉 금지
- 페스트(의심)환자와의 접촉 금지

(여행 후 주의점)

- 귀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 시 검역관에게 반드시 제출
- 귀국 후 7일간 발열 및 기타 관련 증상이 있을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 1339 또는 보건소670-2504로 신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우리군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부적정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아래와 같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불법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동일인 연간 지급한도 100만원)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불법행위별	과태료 부과 (단위:만원)	포상금 지급액 (단위:만원)
담배꽂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	1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	5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 하는 경우	20	5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	5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10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00	1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	5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	1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	5

■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방법

- 쓰레기 투기행위자를 발견한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 제출 (10일 이내)
 - 첨부물 : 근거사진 및 동영상
 - 제출처 : 양양군청 환경관리과(670-218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한국산·연호

중한

정치후원

소금

깨끗한 정치로 가는 길 이 됩니다

맑은 날도, 바람부는 날도
한 발 한 발 밀고 나가면
길이 생기고
소중한 소금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배려로
국인과 나라를 생각하는
경도(敬道)를 걷을 수 있게...
소중한 정치후원금으로
맑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깨끗한 정치를 만드는 격려이자 사랑입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 가능
최대 10만원까지 한계 세액공제

적십자재단-1011-45-41

350만의 가치있는 선택, 적십자회비에 함께 해주세요

지난 한 해에도 176만명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올해에도 적십자회비로 나눔에 동참하세요



홍보대사 소유진

적십자회비, 어려운 이웃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2018년 기준)

국내사업 · 재난구호 38,157명 지원 · 희망봉사 286,317명 지원	국제사업 · 국제 재난구호 12억 7천만원 지원 · 해외 개발협력 13억 7천만원 지원	교육사업 · 교육훈련 439,045명 실시 · RCY활동 859,452명 참여	의료사업 · 공공의료 137,475명 진료
--	---	--	-----------------------------------

다양한 방법으로 적십자회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www.redcros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 및 문의문의 ☎1577-8179

후원계좌 : (농협) 203-01-446556,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

강원도 |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

고용노동부

일자리가 필요할 땐

취업성공 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는 1:1 전담상담사가 배치되어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단계별로 제공하는
맞춤형 종합취업지원서비스입니다.

참 여 대 상

I유형: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 및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위기청소년(15-24세), 신용회복지원자, 비주택거주자, 결혼이민자 등
II유형: 청년(18-34세, 소득무관) 및 중장년(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문의 : 속초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성공패키지팀 033)630-1902, 630-1905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www.work.go.kr/pkg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

물거울, 당신의 사랑을 선물할 때입니다

희망2020 나눔캠페인

2019.11.20(수) ~ 2020.1.31(금)



ARS모금 060-700-0577 (회당 3천원)
계좌입금 농협 203-01-448497
신한 100-013-455552
우체국 200022-01-003311

기부문의 033-244-1662
(예금주: 강원도공동모금회)

강원도 춘천시 수변공원길 11, 2동 201호
기부상담 : 033-244-1662 / 팩스 : 033-244-1688
나눔센터 : 080-890-1212

사랑의열매
강원도 사회봉사공동모금회



대만 신규취항

2019.12.26 부터
양양공항에서 매일 타이베이로 모시겠습니다

양양(YNY) - 타이베이(TPE)

운항기간: 2019.12.26~2020.03.28

운항요일	운항일	편명	양양출발	타이베이도착	편명	타이베이출발	양양도착
월	매주		09:40	11:40		12:35	16:15
화			10:05	12:05		13:00	16:40
수			08:35	10:35		11:30	15:10
목			09:50	11:50		12:45	16:25
금	12/27	4V201	08:50	10:50	4V202	11:45	15:25
	1/3,10,17		10:05	12:05		13:00	16:40
	1/24		08:00	10:00		10:55	14:35
	1/31		09:45	11:45		12:40	16:20
	2/7~3/27		08:00	10:00		10:55	14:35
토	12/28		10:10	12:10		13:05	16:45
	1/4~25		11:55	13:55		15:10	18:50
	2/1~29		10:35	12:35		13:40	17:20
	3/7~28		10:45	12:45		13:40	17:20
일	매주		08:00	10:00		10:55	14:35